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영아·유아·유치부와 초등1~4부, 청년1부, 장년1·3부,
사랑부, 에바다부 등 교회학교 12개 부서

금주에 여름계절학교 실시

초등학교 방학에 따라 일정 일부 변경, 학원전도회도

금주에는 교회학교 12개 부서가 여름계절학교를 실시, 교회가 활기를 띠게 된다.

지난 6월 5일 새가정부의 제13회 여름수련회가 충현기도원에서 모인 것을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연이어 교회학

교 각부의 여름계절학교가 막이 오른다. 금주에는 영아·유아·유치부와 초등 1~4부, 청년1부, 장년1·3부, 사랑부, 에바다부 등 교회학교 12개 부서가 일제히 여름계절학교를 실시하게 된다.

대부분 각급 학교 방학과 여름철 휴가

시간을 이용해서 열리게 되는 여름계절 학교는 특별 신앙 훈련과 함께 보충 교육의 의미가 다분히 있기에 잘 활용하면 교회학교 운영과 발전, 각 개인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따라서 교회학교 각부에서는 여름계절학교에

많은 시간을 들여 연초부터 강사와 장소 등을 위해 준비해 왔다.

예년과 큰 차이 없이 영아부-초등5부까지는 교회당에서, 초등6부부터는 주로 충현기도원을 장소로 사용하게 되고 몇몇 부서가 외부의 장소에서 수련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사도 주로 내부 강사, 지도 교역자가 담당하게 된다.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이는 계절학교이기에 더욱 실효있는 계절학교로 진행하고자 하는 바램 등을 볼 수 있다.

한편 각 지회에서 여름을 맞으며 특별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전도위원회의 학원전도회 여름수련회가 7월 22일(월) 오후 5시~11시까지 교회 베다니홀에서 실시된다. 강사는 학원전도회 지도인 이종대 목사이다.

각부 교회학교의 여름 계절학교 개요는 별표와 같다.

사무국장에 이종국 장로

교회는 개인 사정으로 사무국장직을 사임한 윤명식 장로 후임에 이종국 장로(교육국장 겸임)를 7월 10일자로 임명했다.

윤 장로는 91년 3월 기획실장으로 부임했고 금년 1월부터 사무국장의 일을 해 왔다.

또 사무국 음영과장에 김 신 집사를 임명했다.

부서	주제	주제성구	주제찬송	장소	실시기간	강사(외부)
영아부	사랑으로 자라나요	막 10:16	엄마 아빠 들어주세요	선교관102호	7. 17-18	박도수, 현상민
유아부	예수님과 동행하는 어린이	빌 1:21	다정하신 목자	교육관212호	7. 17-18	계선화, 윤삼중, 배옥인
유치부	서로 사랑해요	갈 5:22-23	사랑의 하나님	교육관205, 201호	7. 17-19	정연희, 윤삼중, 배옥인
초등1부	기쁨을 만드는 어린이	살전 5:16	208장	교육관307호	7. 17-19	손미희
초등2부	하나님을 힘써 알자	딤후 4:4	313장	교육관314호	7. 17-19	송향자
초등3부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가 되자	빌 4:9	458장	교육관407호	7. 16-17	오인숙
초등4부	화평을 이루는 어린이	마 5:9	468장	교육관414호	7. 18-19	박노철
초등5부	믿음과 성령	행 19:2	174장	교육관514호	7. 22-23	김필수, 정광옥, 윤삼중
초등6부	말씀으로 성장하는 어린이	딤후 3:16-17	411장	충현기도원	7. 22-24	조동원, 김희수
중등1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194장	충현기도원	7. 22-24	김희수, 조동원
중등2부	반석 위에 집을 짓자	마 7:24	379장	충현기도원	7. 24-26	최영찬, 고은빈
중등3부	미래 시대의 천국일꾼	욥 23:10	302장	충현기도원	7. 29-31	이홍성
고등부	성령의 불을 우리의 가슴에	엡 5:18-21	173장	양수리수양관	8. 8-10	한근수
대학부	어떻게 살 것인가	전 12:1	303장	충현기도원	7. 1-4	장봉생, (최재선)
청년1부	우리는 땅 끝까지 간다	딤후 4:2	259장	농협연수원	7. 16-18	김동석
청년2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 17:17	265장	갈릴리홀	8. 19-20	김정우, (이정석)
장년1부	지금은 은혜의 때	고후 6:2	172장	충현기도원	7. 16-17	정광옥, (장동민)
장년2부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 12:2	262장	합동신학교	7. 1-2	윤영탁, (김길성)
장년3부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 12:2	493장	갈릴리홀	7. 16-17	정규남, (황창기)
소망부	소망 중에 즐거워하자	롬 5:5	539장	충현기도원	6. 24-25	이종대, 윤종일, 배옥인
새가정부	예수님과 의논하여 사는 가정	빌 4:6-7	305장	충현기도원	6. 5-6	성봉환
사랑부	우리는 작은 선교사	딤후 4:7	253장	교육관107호	7. 17	장경철
에바다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활	빌 1:21	359장	충현기도원	7. 18-20	이준우(이영빈, 이재욱)
영어교육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딤후 3:14	379장	충현기도원	8. 14-15	이승림

청소년을 위한 봉사 활동 안내

안 믿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도 있어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사회 봉사 활동의 시간을 요구함에 따라 전도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조금씩 배우고 실천하는 좋은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권유함으로 간접적인 전도의 기회도 삼을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장년 성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참여하며 봉사의 분을 보신다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

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 다음 -

1. 시흥 어린 양의 집 방문

청년부가 주축이 된 '아가페토스' 모임이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모여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부에 출석하는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놀이도 즐기고 찬양도 하면서 봉사합니다.

신청은 이신동 집사(중등1부 교사 ☎ 481-3119 호출 015-375-3117)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농어촌 봉사 활동

금번 파송되는 농어촌전도대와 함께 가서 농촌 일손을 도우며 봉사합니다. 파송일자는 7월 29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있으며 기간은 4박 5일간입니다. 파송지역은 아래와 같고 자세한 사항은 전도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파송지역 / 부산, 강원 영월, 강원 원주, 강원 인제, 강원 춘천, 강원 정선, 경기 양평, 경기 광주, 경기 가평, 경기 포천, 경남 거제, 경북 김천, 전남 진안, 전남 신안, 전남 고흥, 충남 논산

신청은 전도위원회 강은원 장로(☎ 962-4486)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3. 녹음 봉사

시각장애자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예벤엘선교원(전명훈 목사 총신대 졸)에서 추천하는 신앙서적 소책자들을 집에

서 낭독 녹음하여 테이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이정미 집사(마리아4-1지회 ☎ 599-1276)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4. 역삼역에서 노인 돌보기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을 부축하고 돌보며 에스컬레이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으로 봉사합니다. 가능하면 2, 3, 4부 예배 전후로 도우면 좋고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역삼역 사무실에 가서 시작하면 됩니다.

5. 충현교회 식당 봉사

컵 닦는 일이나 식탁 닦기 등 바쁠 때는 국수 봉사도 돕습니다. 가능한 시간에 식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봉사 활동을 통해 뿌리는 씨앗들이 꽃피우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헌간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시편 23:1-6)

본 시편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침략을 받아 도망다닐 때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셋째아들 압살롬은 다른 아들들보다 훌륭한 아들입니다. 머리가 좋고 매사에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아들이 많아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압살롬은 전국적으로 청년운동을 시작하여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다윗 왕의 모사 아히도벨을 포섭하였으며 군대를 훈련시켰습니다. 헤브론에 헌신예배드리러 가겠다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아무날 몇 시 헤브론으로 훈련된 장사들을 집합토록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압살롬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척하다가 돌연 "압살롬 왕 만세"를 부르고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압살롬을 당할 자는 없다. 그러나 머뭇거리거나 싸우다가는 예루살렘은 싹밭이 되고 피바다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 내어 주고 속히 도망가자." 보좌와 궁궐을 내어 주고 다윗 왕은 신하 몇 명을 거느리고 역을타고 그지 없는 망명길에 나섰습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한숨에 땅이 꺼질 것 같고 낙심에 주저앉아 자살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낙심하지도, 저주하며 이를 갈지도 않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며 시편 23편을 지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려울 때 찬송을 부른 능통한 다윗에게 존경이 갑니다.

1. 성도는 양과 같습니다

첫째로, 양은 약자입니다. 양은 멀리 못 봅니다. 양은 눈 위까지 털이 덮여 5미터, 10미터 밖을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약한 짐승이 와도 도망갈 여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몸도 튼튼하고 지식도, 지혜도, 기술도 많아서 산을 뚫을 만한 힘이 있는 것 같으나 죄악을 이기는 데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둘째로, 양은 어리석습니다. 달나라까지 여행하는 인간은 가장 지혜로운 것 같으나 복 받을 길을 가도 못 찾고 망할 길을 골라 가면서 마보 노릇도 합니다. 그러므로 양의 행복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목자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은 배 고프지 않고, 원수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으니 평안하고 살이 찹니다. 싹꾼 목자를 만난 양은 이리가 올 때 목자가 도망가면 이리에게 쫓기게 됩니다. 양의 행복은 싹꾼과 사랑이 결해 있는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보장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마가 득실거리는 세상, 죄악의 밤이 깊어 가는 세상을 걸어 가야 하는데, 나 혼자서

가려고 하지 마시다. 선한 목자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셋째로, 양은 목자의 음성과 도적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양은 바보 같지만 목자가 '가자' 하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잘 아는지 따라갑니다. 싹꾼이나 도적이 와서 목자의 흉내를 아무리 내도 안따라 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을 말, 못 들을 말은 분간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복받을 말은 오히려 안 듣고 망할 말은 귀가 울려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진짜 양은 들을 말과 안 들을 말을 분간할 줄 압니다.

넷째로, 양은 싸울 줄을 모릅니다. 염소는 밤낮 싸우지만 양은 싸울 줄을 모릅니다. 충헌교회 교인들은 싸울 줄 모르는 화복동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1)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너무 잘되면 칭찬받다가 그만 교만해져서 실수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다가 실수합니다. 또 너무 건강하면 약한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해 물렁한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서 풍연히 자기를 안 돌아본다고 오해하면서 실수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실수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길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네 가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가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기 쉬웠으나 다윗은 원망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가 쉬웠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 부르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신분을 지키면서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신하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억울함을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하는 것이 상례인데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면서 선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와 기도를 하였습니다.

셋째, 악한 사람을 대하는 데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신도 못 믿고 멀리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핏배가 불량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고 면장을 날리면서 저주하고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이때 다윗 왕의 옆에 있던 아버지 장군이 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아버지 장군의 팔개 오른 분노를 막으면서 악한 자를 대할 때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반역한 아들에게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반역을 도모한 못된

다윗이 도망가며 이 시를 지었더니, 한 달이 못되어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태풍에 갇힌 하루살이 떼처럼 쳐치하셨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몸에 병이 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역을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악한 자의 모략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생은 하나님만 믿고 그의 말씀만 순종하며 따라가리이다."



아들 압살롬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아들의 생명을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신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실수를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길이 편안 하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될 때 실수하지 않는 신자, 어려울 때 실수하지 않는 성도만 됩니다. 그 방법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따라 가겠습니다"입니다.

(2) 궁핍이 없습니다

신도 못 믿고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 왕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사람이 돈을 모으면 찾아오는 손님이 많고 벼슬이 높아지면 선물도 많이 오지만 돈이 없어지고 지위가 떨어지면 개 한 마리도 일선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쫓겨가는데 누가 돌보아 주겠습니까. 다윗 왕과 그를 따라가는 사람은 꼭 굶어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를 찾아 왔습니다. 삼십만 명이 찾아 왔습니다. 먹을 것을 지고 따라왔습니다. 왕을 위해 생명을 내놓겠다고 충신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끼도 굶은 것이 없었습니다. 돈을 따라 가던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실력이 이미 없어졌는지라 굶어 죽지만 인격을 지킨 사람은 돈이 떨어져도 사랑과 대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도망가지만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으니 굶지 않는다." 과연 대접 위에 사랑을 대 했었습니다.

(3) 위태로운 일이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나는 사망의 올챙이 골짜기로 가는 양 한 마리같이 보일 것이다. 골짜기에 이리, 곰, 송방이, 사자가 꼭 차 있다고 하자.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 손을 대겠느냐? 사람 보기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러니 나에게 손대 자는 없다." 너무나 능통합니다.

(4) 억울하게 끝내는 법이 없습니다

억만 원수가 나를 치려 따라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상

을 배풀었습니다. 이 상이 무슨 상입니까? 잔치상입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배 푸신다는 말은 잔치상을 배풀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망으로 주시는 잔치상에서 음식을 받아 먹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음식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원수가 따라와 보고는 "아이쿠, 저것이 맛있는 것을 많이도 먹는다" 하고 돌아서러니까 벌써 자기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원수들이, 구둣줄에 결박당한 포로가 된 자리에서 자기들이 해하려고 따라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대접받는 모습을 꼭 보리라라는 말입니다.

꼭연 다윗 왕은 시인 중에 시인입니다. 그 어려운 때에 도망을 가면서 이런 요요한 시가 어떻게 나오니까.

(5) 여호와께 영원히 거합니다

"오늘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 궁궐에서 쫓겨났다. 그러므로 성전에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졌다. 그러나 내 영혼은 지킴도 하나님께 품 안에 있고 몸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육신으로 도망은 하지만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 내 마음은 천국이다. 며칠이 지나면 분명히 나는 예루살렘 궁궐로 돌아가고 성전에도 다시 들어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을 모실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헌의 성도들이여, 시편 23편을 꼭 외웁시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배워서 다. 그리하여 다윗이 받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라.

다윗이 도망가며 이 시를 지었더니, 한 달이 못되어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태풍에 갇힌 하루살이 떼처럼 쳐치해 버렸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지은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몸에 병이 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역을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악한 자의 모략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생은 하나님만 믿고 그의 말씀만 순종하며 따라가리이다."

* 영아부·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

◆ 영아부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며 ◆

기도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주실 은혜를 사모

홍영월(영아부 교사)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녀들이 지혜롭고, 남보다 늘 월등하고, 타인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주길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뜻대로 커 주는 자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엘리트가 못되는 것일까요?

어린 생명들이 부모님 품에 안기어 영아부에 왔을 때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찬양, 율동하면서 좋아할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교사들이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면 예쁜 고사리손으로 기도 손을 할 때, 말을 잘 못하지만 웅얼웅얼하며 찬양할 때, 뒹뚱뚱 넘어지면서 현금함을 강대상에 가져다 드릴 때의 모습은 보지 않고서는 그 보람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작은 생명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제게 기쁨과 보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님께서 영아부에 몇 번 오시고는 "어린애가 뭘 알아"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아이를 영아부에 보내지 않을 때는 눈물이 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심방을 해도 "어린애가 뭘 알아" 하면서 외면할 때 좌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들! 어린아이의 인격 형성은 태아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이 부족한 가정의 부모님들께서 영아부에 아이를 맡기셨다가 아이의 놀라

운 발육을 보고 회개하여 영아부의 기둥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손색이 없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두 의심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들의 믿음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영아부 교사 일동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 교사 강습회에서 6월 24일-27일 4일간 교육을 받고 이를 영아부 실정에 맞게 연구하고 다듬었습니다. 영아부는 '사랑으로 자라나요'라는 주제를 놓고 철저히 준비하는 데 주력을 다했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경학교는 7월 17일-18일(오전 9:30-12:00) 이를 동안 진행되며 이 성경학교는 부모님들께서 어린 생명을 양육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교육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영적, 육적으로 치우침이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17일 첫째날 : 교사준비기도회로 시작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 강사 박도수 전도사님의 귀중한 말씀을 듣고 찬양, 율동을 통하여 은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2부 순서로써 공작 시간을 넣어 아이와 엄마가 머리를 맞대고 꾸미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8일 둘째날 : 전도사님의 하늘나라

이야기를 듣고 찬양, 율동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아이의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며 믿음의 식구들끼리 사랑을 맞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예정입니다. 2부 순서로써 현상민 목사님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귀중한 특강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 아이 믿음, 아이의 발육과 정서적인 측면 등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 만큼인지 직접 듣고 자로 재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학교 예배 장소는 선교관 102호

로 하나님과 만남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만 0-2세의 아기들은 부모님 품에 안기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지혜롭고 믿음이 튼튼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곧 발걸음을 영아부로 옮겨 주십시오.

이번 제23회 여름성경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충현의 식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성령의 불꽃이 일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며 ◆

제43회 여름성경학교에
유치부 모든 가족을 초대합니다

이동명(집사, 유치부 부감)

유치부 모든 가족을 초대합니다. 유치부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어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주일 이른 아침마다 어린이들을 유치부에 보내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심어 믿음의 어린아로, 주님 기뻐하시는 어린아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아로 자라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나, 주일 1부와 2부 시간으로 쪼개듯 짧은 시간으로 어린이들과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이 모든 아쉬움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오니 힘드시지만 어린이들의 장래를 위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치부 어린이들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으로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기여할 인물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확실히 믿기에 삼가 조심하며 또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원예사가 퍼주고, 잡아주고, 붙들어 주는 정성드림같이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기다리며, 정성을 다해 전정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저희 유치부 강봉수 장로님을 비롯한 전 교사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물론 주일에도 잘 보내 주셔서 저희 교사들로 하여금 보람되고 충성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간 : 1996. 7. 17 - 19

시간 : 오전 9시 30분 - 12시 30분

장소 : 유치부실(교육관 205호)

정검다리

청년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한 수련회

김동석

(목사, 청년1부 지도)

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캄캄한 밤에 여럿이 함께 물러 다니는 것도 새로운 흥미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푸른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것은 두려워지고 뒹뚱뚱 걷는 것도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던 신선한 음식보다도 더럽고 다 써온 하수구를 뒤지는 것도 별로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의 정체성(identity)을 잃어버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거위가 기러기가 되기는 어렵지만 기러기가 거위가 되기는 쉽다"는 것이 오늘을 사는 기독교 청년들의 심각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

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버리기까지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청년공동체는 대단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은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고,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더욱 힘든 시기가 아닌 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청년공동체의 심각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몇 마디의 말이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번 여름에 저희 청년1부에서는 이러한 교육적인 필요성을 간파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청년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그 함께 하는 시간이 대단히 짧고 특별히 요즈음 젊은이들의 시선을 잡아 당기는 화려함은 없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훈련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더욱이 금번 여름수련회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단순한 훈련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구체적인 복음 증거 사역의 기회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우리 충현의 귀한 젊은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적은 시간과 물질을 드러서라도 우리의 미약한 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역지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의 기회임을 확신하기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어느 날 하늘의 왕자인 기러기 한 마리가 이 땅 위에 내려왔습니다.

땅 위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땅 위에는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놈도 있었습니다.

바로 거위였지요.

그래서 그 기러기는 거위들 틈에 끼어서 그들과 함께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거위들은 날개가 있으나 하늘을 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발에 물갈퀴가 있으나 수영을 하기보다는 진흙탕 위를 뒹뚱뚱 걷는 것이 더 신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러기도 거위들과 구별되게 행동하는 것을 삼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기러기는 왕자티를 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고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하던, 거위들이 즐기는 음식과 놀이에도 함께 어울려 지내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들과 함께 동네어귀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밤이 밝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 주인은 밤이 밝은 거위들로 집 주위를 지

토막소식

▶ 초등3부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시편)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 중등3부에서는 7월 29일~31일에 수련회를 실시함에 따라, 교사기도회(14일, 21일), 특별 모임(21일, 28일), 특별기도회(24일)를 통해 은혜로운 수련회를 위한 만전의 준비를 하게 된다.

▶ 새가정부에서는 오는 7월 21일(주일)에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아가서 2장 8-17절과 에베소서 5장 21~6장 4절 중 하나를 택하여 준비하면 되는데,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잠언 3장 1-12절, 요한일서 4장 7-12절이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선교위원회의 해외단기선교훈련을 떠나는 태국과 인도네시아팀에서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아덴홀에서 단기선교에서 실시할 프로그램에 대한 리허설을 실시한다. 해당 당사자는 물론 관심 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선교위원회의 해외단기선교단에서는 오는 7월 21일(주일) 저녁 찬양예배시 파송예배를 드리게 됨에 따라 이날 해외단기선교단의 찬양 순서를 위한 찬양연습을 오늘 오후 3시 베다니홀에서 갖게 된다. 대상자는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일본, 터키팀 및 중고등부 선교수련회팀이다.

오늘 저녁 찬양예배 농어촌전도대 파송예배로 드려

오늘 2, 3부예배 외국인 헌금 특송도

오늘 2부예배 헌금시간 특송은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인 데이빗 브리튼 씨(테너)가, 3부예배때는 미국 북 텍사스주립대학 교수인 제리 돈 씨(베이스바리톤)가 각각 찬양을 한다.

한편 오늘 저녁 찬양예배는 전도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농어촌전도대 파송예배로 드려진다. 금년 여름에는 각 교구에서 구성된 10개팀, 청년1부 6개팀, 대학부 5개팀 및 춘천소년원에 전도대를 파송하게 된다.

7월 22~24일 중·고등부 선교수련회 장봉생·한근수 목사 강사로

중·고등부 면려회의 선교부 학생들을 위한 '중·고등부 선교수련회'가 오는 7월 22일~24일 강원도 인제군 서현교회에서 열린다.

중·고등부 시절부터 선교적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선교적 열정과 선교적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 해마다 수련회를 실시해 오고 있어 이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다. 금년도

수련회 강사는 장봉생 목사(선교위원회, 대학부 지도)와 한근수 목사(고등부 지도)이다.



'예수를 바라보자'

장년2부(부장 최성현 장로)의 제18회 여름수련회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강사 김길성 목사(현 총신대 신대원 조직신학 교수)를 모시고 7월 1일, 2일 양일간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교장 윤영탁 목사)에서 은혜 속에 열렸다.

장마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됐다. 이번 수련회는 2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강사 김길성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시간이었다. 참석한 회원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마지막 특강을 마치고 김길성 목사가 강단에서 내려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은혜 받은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감사한 것은 평소 애초부터 친교의 시간을 많이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다. 주일날 교회에서 모일 때는 각자 시간에 쫓겨 인사만 겨우 하는 정도였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서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며 기도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다. 좋은 강사님들과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나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버스가 교회에 와서 고요와 적막 속에 높이 솟아 있는 종탑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크게 감사할 수가 있었다.

선교지에 보낼 물품을 수집합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96년 단기수련회팀(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터키, 일본) 편으로 보낼 물품을 수집합니다.

• 수집품목: 교회학교 각부 여름성경학교매 사용하고 남은 물품 중 ① 문구류, ② 완구류, ③ 생필품, ④ 의류, ⑤ 기타

• 수집기간: 7월 14일~21일
• 수집장소: 사무국,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

문의: 552-8200 교환 356-358

◀ 홀트해외입양아 모국방문단 민박 봉사를 하고 나서 ▶

입양가족을 존경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 소 현

(권사, 제1-1교구)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선지자니라"(마 7:12)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산상수훈 중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위의 말씀은 윤리 교훈의 에베레스트라고 생각한다. 말씀을 실천으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홀트 입양가족 모국 방문단 중 42명이 춘천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토요일 저녁 민박을 하게 되어 우리 가정에서도 2년째 손

님을 모시게 되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우리가 익히 아는 복지기관이다. 1955년 이래 한국 전쟁 직후의 참담함 속에서 혼혈 고아 8명을 입양한 창설자 해리 홀트 씨의 정신을 40여년간 이어온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기관이다. 어린이는 한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보호받으며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이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들의 삶은 보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0여년간 13만의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때는 고아수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받기도 하지 않았는가. 혈연(땃줄)을 중히 여기는 우리들 대신 우리 교회를 입양하여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모국을 보

여 주기 위해 귀국한 입양 가족을 존경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토요일 민박 후 주일 아침 영어예배에 참석한 그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행복과 감사를 느낀 모습이었다. 이어서 3부 예배에 참석한 그들은 특별히 맥추감사절을 맞아 시편 50편 22,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그 어느때보다 힘있게 선포하신 김창인 목사님의 메시지에 감동과 감사와 기쁨과 도전을 받고 떠났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발전된 조국을 알고 배우고 입양국과 한국 문화의 균형있는 이해를 통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사진/민박을 한 입양아, 그 부모와 함께)

..... 결손가정 학생을 방문 위로하고

전 은 실

(집사, 제6-1교구)

할렐루야!

루디아전도회 제6-1지회가 가양동에 위치한 경서중학교의 결손가정 학생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이 학생들의 반찬을 준비할 때 마리아전도회와 함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훌륭한 음식 솜씨를 발휘할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는 전도회원들은 앞치마를 두른 채 매달 한번씩 이영수 집사님께서 회장인 김경에 집사님이 준비한 모든 반찬거리를 다듬고, 썰고, 무치고, 버무리며 11명의 학생들을 위해 56가지의 밑반찬과 고기들을 담고 나누어 중학생들인 남녀 학생들의 가정 에 배달해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도 후원하고 있다. 그 학생 중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 어머니가 간질로 혹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 여러 형태의 가정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얼굴 생김새나 성실한 모습들을 볼 때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사랑이 가는 아이들이다.

요즘은 혼탁한 사회 문제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이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물을 배분할 때는 더 많이 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할 지경이다. 부모 밑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은 감사한 줄도 모르고 반항을 하고 제멋대로 하길 원하고 있지만 정말 그 아이들을 대할 때면 안쓰러운 생각도 있으나 착실하게 공부하며 생활하는 모습들이 대견하기만 해진다. 그들에게 육의 반찬을 배분하며, 영의 반찬도 같이 주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 신앙 안에서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고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 학생들에게 범사가 행통하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우리 주의 성령이 수고하는 전도회원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